



특집—“왜 다시 ‘재현’이 문제인가”

윤성우·김태환·이윤영·양윤의·이소연

『쓰레-문학의 이름으로』 제16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484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왜 다시 ‘재현’이 문제인가” 특집으로 엮어

반연간 문학 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6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왜 다시 ‘재현’이 문제인가”로,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성찰하여, 근래 문학-장터를 떠도는 ‘재현의 위기’라는 기호를 짚어보고자 한다. 윤성우 교수는 들뢰즈의 반재현적인 재현 비판론과 리콤프의 미메시스론, 랑시에르의 재현 이론을 분석하면서 재현을 둘러싼 현대 철학의 논점을 세심하게 조망한다. 김태환 문학평론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징한 재현 개념에서 출발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재현이 거처온 독립과 분화를 상술한 뒤, 재현 대상보다 재현 매체가 더 중요하다는 대전제하에 진행되어온 근대 예술의 혁신 과정이 우리 시대에 한 종착점을 거치면서, 이제는 기계화된 재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 이윤영 교수는 영화에서의 재현 문제를 개괄한다. 영화에서의 재현은 이미지적인 특성에서 회화나 사진과 관련되고, 이야기적인 차원에서는 문학이나 연극과 관련되지만, 복합적으로 이 두 차원이 결합하여 영화만의 독창적 재현 층위가 발생한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양윤의 문학평론가는 김멜라·이서수·박서련·구병모·이미상 등 동시대의 한국 소설이 개진 중인 새로운 재현의 양상들, 즉 ‘현실’·‘현실로부터 발생한 기호’의 관계를 짚으며, 재현 층위의 다층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지금-여기’, 즉 한국 소설이 벌이는 실천적 경험 한가운데에서 발생 중이라고 파악한다. 이소연 문학평론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학이 벌이는 재현 가능성/불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지돈 소설의 실험성을 분석한다. 정지돈의 작품이 후기 자본주의의 하이퍼-스페이스에 떠도는 병적 징후를 자신의 방식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글쓰기의 새로운 형식을 갈망하는 작가의 실험 정신과 유희의 흔적들을 발견한다.

1. ‘재현’에 대한 현대 철학의 논점_들뢰즈·리콤프·랑시에르를 중심으로 | [윤성우\(한국외대 교수\)](#)
2. 재현 예술의 이론을 위한 메모 | [김태환\(문학평론가\)](#)
3. 영화에서 재현에 대한 노트 | [이윤영\(연세대 교수\)](#)
4. 새로운 재현‘들’이 시대의 소설은 재현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 [양윤의\(문학평론가\)](#)
5. 물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한다, 그렇지만..._정지돈의 소설을 갖고 할 수 있는 일 | [이소연\(문학평론가\)](#)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실패를 향한 재현의 의지

1. 작은 신일 것이라고 | [백수린\(소설가\)](#)
2. 보이지 않는 것들의 비재현 | [안미란\(시인\)](#)
3. 모래시계와 광원뿔 | [윤해서\(소설가\)](#)
4. 재현? 개는 아무 잘못 없던데? | [임현\(소설가\)](#)
5. 어떤 물골 | [최하연\(시인\)](#)

시시비비—유럽 정치의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우파 포퓰리즘인가 포스트 파시즘인가?

주요한 사회적 쟁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시시비비> 난은, 서양사학자 장문석 교수의 글로 전 세계적인 극우 정치 세력의 약진 현상과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로 탄생한 극우 정권의 사례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유럽 정치의 역사적·사상사적 배경 속에서 유럽의 우경화를 ‘우파 포퓰리즘’과 ‘포스트 파시즘’의 맥락에서 파악해보고, 이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유럽 기성 정치의 엘리트주의 또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작은 기획—만화 영역의 확장

<작은 기획>으로는, 기존 만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미적 양식을 도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래픽 노블’ 등, ‘만화 영역의 확장’을 그 주제로 다룬다. 『러스티 브라운』 등을 세세하게 살펴 작품에 내재된 크리스 웨일의 방법론과 테크놀로지로서의 코믹스, 주체 문제를 제시한 윤아랑 문화평론가의 글과 추상 만화와 추상 연속 예술 간의 잠재적 관계성을 점검하며, 추상 만화의 ‘추상’을 정의해온 일련의 시도들을 다각적으로 진단한 오혁진 만화평론가의 글, 그리고 만화에서 인물과 비교해 비교적 소홀히 여겼던 배경의 잠재적 가능성을 포착하여 배경이 주체적으로 활용된 작품들을 소개하며, 인물 중심의 만화를 읽을 때와

변별되는 시각적 경험을 제시하는 한상정 교수의 글을 통해 ‘확장된(될) 만화 영역’을 살펴본다.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 코너는 김지하의 담시집 『오적』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성민엽 문학평론가는 김지하의 담시가 판소리의 해학과 풍자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험을 개진해나간 새로운 시 양식이라고 분석하며, 그 의미를 김수영과 루쉰 그리고 마오쩌둥의 풍자론과의 비교를 통해 추적해본다.

지금 이 언어

<지금 이 언어> 코너는 지면을 대폭 확장해 모두 세 편의 글을 실는다. 우선 진은영·황인숙의 근작 시집들에 관한 이희우 문학평론가의 비평, 그리고 정영문의 근작 소설을 분석한 양순모 문학평론가의 글과 더불어 김경욱·이장욱의 근작 소설을 조명한 전승민 문학평론가의 글은 한국문학의 저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에는 김보경 문학평론가가 신영배의 『젤소미나가 사는 집』을 ‘유랑’이라는 여성적 형식과 ‘시’라는 집의 형식을 모티브로 삼아 세세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시와 소설+텍스트 실험 공간

이번 <시와 소설> 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풍성하다. 이향·김근·김미령·강보원 시인의 시 작품과 강영숙·황현진·나일선·김갑용·구소현 작가의 소설이 당대의 문학적 타진과 문학적 모색을 적극적으로 전경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호 <텍스트 실험 공간>은 시인이자 극작가이기도 한 이지아 씨의 ‘시극’을 실는다. 흥미진진한 ‘미디어 아트 시극’의 형식으로, ‘타자’와 ‘나’의 ‘관계’를 추적하고 그 관계가 빚어내는 시간의 무한을 파편적으로 형상화한다.

차례

특집: 왜 다시 ‘재현’이 문제인가

1. ‘재현’에 대한 현대 철학의 논점_들뢰즈·리퀴르·랑시에르를 중심으로 | 윤성우
2. 재현 예술의 이론을 위한 메모 | 김태환
3. 영화에서 재현에 대한 노트 | 이윤영
4. 새로운 재현‘들’이 시대의 소설은 재현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 양윤의
5. 물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한다, 그렇지만..._정지돈의 소설을 갖고 할 수 있는 일 | 이소연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실패를 향한 재현의 의지

- 작은 신일 것이라고 | 백수린
- 보이지 않는 것들의 비재현 | 안미린
- 모래시계와 광원뿔 | 윤해서
- 재현? 개는 아무 잘못 없던데? | 임현
- 어떤 물골 | 최하연

시시비비

- 유럽 정치의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우파 포퓰리즘인가 포스트 파시즘인가? | 장문석

시와 소설

- 영화만 틀면 잠드는 사람의 거처 외 2편 | 강보원
- 분지의 두 사람 | 강영숙
- 수수께끼를 푸는 방학 | 구소현
- 색인 | 김갑용
- 정류장 외 2편 | 김근
- 제너레이션 외 2편 | 김미령
- Naked Lynch | 나일선
- 연인들은 잠시 흰 빛을 빌려 올 줄 안다 외 2편 | 이향
- 부업 | 황현진

텍스트 실험 공간

- 알고 싶은 n의 차원_미디어 아트 시극 | 이지아

작은기획 : 만화 영역의 확장

- 만화와 불가능한 만남_『러스티 브라운』에 대하여 | 윤아람
- 추상 만화의 추상성 | 오혁진
- 만화에서의 시각적 배경 | 한상정

그때 그 실험

- 풍자로서의 담시와 양식으로서의 담시_김지하의 『오적』 | 성민엽

지금 이 언어

- 접는 언어, 펼치는 언어, 감응의 언어_진은영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와 황인숙의 『내 삶의 예쁜 종아리』 | 이희우
- 서사 중독과 통나무 같은 소설_정영문의 『프로로그 에필로그』 | 양순모
- 이야기의 낮과 바로크의 밤_김경욱의 『누군가 나에 대해 말할 때』와 이장욱의 『트로츠키와 야생란』 | 전승민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 유랑의 여성적 형식과 시라는 집_신영배 시집 『젤소미나가 사는 집』 | 김보경

지난 호 포럼 보론

- 번역과 영향, 20세기 예술에서의 번역적 통치성 (2)_동서에서 남북까지의 연쇄들, 줄리언 반스의 쇼스타코비치와 김연수의 백석 | 황호덕